

블랑팡의 파트너 로랑 발레스타, 올해의 와일드라이프 포토그래퍼 "지구 환경" 부문에서 수상하다

2013년 이래 블랑팡은 로랑 발레스타(Laurent Ballesta), 그리고 실러캔스(coelacanth) 어류를 찾아 헤매는 그의 **곰베사 프로젝트(Gombessa Project)**의 메인 파트너로서 함께 했다. **올해의 와일드라이프 포토그래퍼 "지구 환경(Earth's Environments)"** 부문에서 수상을 거둔 사진은 **곰베사 III - 남극 대륙!(Gombessa III - Antarctica!)** 원정에서 촬영한 것으로 최초로 빙하의 잠겨 있는 부분 전체를 보여준 사진이다. 로랑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53회를 맞은 **올해의 와일드라이프 포토그래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져 오고 있는 명성 깊은 자연 사진 대회로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이 운영한다. 이 대회는 자연 세계 인식에 있어 사진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자연의 지속 가능성과 보존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중에서 "지구 환경" 부문은 지구라는 지형, 지구를 형성하는 자연의 힘, 그리고 순수한 야생 그 자체의 규모와 의미를 기린다. 얼어붙을 듯 차가운 물 속에 잠수해 몇 시간 동안의 작업 끝에 얻은 결과물인 로랑 발레스타의 빙하 사진은 이 부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전 세계 바다를 보존한다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확신하는 블랑팡은 **곰베사 프로젝트** 동안 진행된 특별한 사진 촬영, 그리고 로랑 발레스타의 재능이 인정받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로랑 발레스타와 곰베사 프로젝트

로랑 발레스타는 해양 과학자이자 명성 높은 수중 포토그래퍼로 새로운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블랑팡의 후원과 함께 그는 **곰베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까지 접근이 어려워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심해 생태계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프로젝트는 벌써 4번의 원정을 실시했다. **곰베사 III**에서 블랑팡과 로랑 발레스타는 탐험, 잠수, 촬영 미션을 띠고 남극 대륙으로 향했다. 또한 <펭귄: 위대한 모험>의 감독인 **뤽 자케(Luc Jacquet)**와 협업했다. 전문 다이버 팀이 이 지역 얼음 바다 아래로 내려가 남극 심해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을 포착해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몇몇 연구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심해 동물군 목록을 만들어냈고, 과학 논문 작업을 하는 연구자들이 모든 사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블랑팡의 오션 커미트먼트, 바다에 대한 헌신

1735년 창립 이래 선구 정신을 발휘해온 블랑팡 매뉴팩처는 60년 이상 다이빙과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953년 세계 최초의 현대 다이빙 위치인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의 런칭 이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유산을 기리며 블랑팡은 바다 탐험과 보존 프로젝트에 헌신해왔다.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블랑팡은 주요 과학 프로젝트, 바다 탐험 프로젝트, 심해 사진, 자연 포럼, 전시, 대중이 높은 관심을 지니는 매체와 웹사이트 등을 후원하며 전반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 이래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라는 이름 아래 바다 탐험과 보존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총동원하며 블랑팡은 11개의 주요 과학 원정을 공동 후원했고, 수상을 거둔 다큐멘터리 영화, 전시, 출판물을 선보였다. 특히 블랑팡은 새롭게 보호를 받게 된 바다 4백만 제곱 킬로미터를

새롭게 추가하며 전 세계에서 보호 받는 바다 표면을 두 배로 늘리는 데 공헌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로랑 발레스타가 말하는 **빙하의 숨겨진 얼굴(hidden face of the iceberg)** 사진 뒷이야기

“사나운 50도(Furious Fifties) 지대가 우리 뒤에 있고, 아스트롤라베(Astrolabe)가 빙하의 고요한 물길 사이로 항해하며 남극 대륙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거대한 얼음이 믿을 수 없는 높이로 뿔어 나간다. 사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은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 그 누가 산이 떠다닐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 듀몽 뒤르빌(French Dumont d’Urville) 베이스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아델리 랜드(Adelie Land)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우리는 마치 65m 길이의 보트 위 작은 점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조용히 그것을 따라 미끄러져 들어간다.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체 크기의 10%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표면 아래에서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보이지 않는다. 웹상에서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와 역지로 꾸며낸 이야기 등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지만 한눈에 빙하 전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그것을 촬영한 사람은 더더욱 없다. 열악한 시야, 어두움, 얼어 붙을 듯 차가운 물, 범접하기 어려운 깊이. 수많은 장애물이 이 잠겨 있는 곳의 비밀을 꼭꼭 숨겨두려고 한다. 마치 얼음 행성의 숨겨진 얼굴과도 같다. 이곳에서 11일간의 쉽지 않은 횡단 이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빙하 전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즉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는 3주 동안 다이빙했고, 매일 밤 녹초가 되어 돌아왔다. 그 잠수를 통해 해저 위 떠다니는 약 200m 원주의 구 형태 빙하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것은 유빙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요한 모습이다. 따라서 떠내려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는다. 조류에 의해 부드럽게 다듬어져 거대한 자갈 같은 느낌을 준다. 나는 내 전략을 팀원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생각에 동조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다음 날 우리는 얼음 경사를 따라 잠수를 한다. 해저에 닿으면 줄을 바다 바닥에 고정하고 표면을 표시하는 부표를 릴에 고정한 후 계획을 실행한다.

우리는 빙하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진 거리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깊은 물 속에 거대한 격자 구역을 만들어낸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또 발가락 몇 개에 동상이 걸리고 나서야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다. 물 아래에서는 아무도 빙하 전체를 볼 수 없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시야 밖으로 벗어나 있었고, 멀리서 바라보면 두꺼운 물 속에 가려 사라져버리곤 했으니까. 하지만 몇 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전체 모습이 최초로 온전하게 스크린 위에 등장했다. 오랫동안 꿈꿔온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로맹 가리(Romain Gary)의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상상이나 허구가 없다면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바다는 단지 짠 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테니까.’”

올해의 와일드라이프 포토그래퍼에 대한 추가 정보

올해의 와일드라이프 포토그래퍼는 생물의 다양성, 생명의 진화와 기원을 기리는 동시에 자연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회는 윤리적으로 촬영한 자연 사진에 상을 수여한다. 이 말인즉슨 지나친 디지털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자연 세계를 그대로 포착한 정직한 캡션을 수반한 사진, 그리고 동물과 그들의 환경을 존중하며 촬영한 사진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관련 전시는 매해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며 영국과 전 세계 60 개 이상의 도시를 투어한다.